‘원망’이란 하나님 IQ 대들기

(시편 106:1~48)

6.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7.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8.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9.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10.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11.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 남지 못하였도다
12.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13.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원망’이란 하나님 IQ에 대들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원망’이란 하나님 IQ에 대들기

‘원망(怨望)’이라는 말을 사전에서는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이란 말을 좀 더 신앙적으로 정의해보자면 인간이 자기의 IQ를 가지고 하나님의 IQ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에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음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올 킬 해버리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을 하는 순간 마음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원망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원망을 할 때에는 대개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서 원인을 찾습니다만 사실 그 뿌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미련하여 길을 굽게 해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 원망의 속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인간의 속성 중의 하나처럼 되어버린 원망과 불평은 본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서는 안 될 변종이고 돌연변이입니다. 사전에 등재되지도 않아야 할 속성이 마귀의 장난으로부터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친숙한 IQ라는 개념으로 수치화시켜본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 IQ가 107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IQ를 10억이라고 해봅시다. 사실 10억이라는 숫자도 실감나는 숫자는 아니니 금액으로 환산해서 적용해봅니다. 우리는 107원짜리 IQ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소하게 잡아서 10억 원의 IQ입니다. 돈으로 환산해보면 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1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07원은 무가치에 가까운 돈일 것입니다.

우리는 107원짜리 IQ로 만든 계획과 소원을 펼치고 사느라 하나님의 10억 원의 IQ 계획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이 부딪힘의 모든 순간에 원망이 나타납니다. 원망은 하나의 습관에 가깝습니다.

본 시는 105편에서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105편은 가나안 정착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의 초반부를 다루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율례에 대해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율법과 율례에 대해 무지한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고하며 용서와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똑같은 도식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전대미문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반역하는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깨닫고 돌이키도록 징계를 하셨고, 이들은 아픔을 느끼고서야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반역과 불신앙을 표출하였고 징계와 회개와 용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이러한 도식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하여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 AD.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자체가 깡그리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1948년 시오니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성립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간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지구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선택받은 선민들이 왜 이렇게 집요하고 끈질기게 패역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이 패역함과 불신앙의 핵심은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초토화시키는 핵폭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이북의 핵폭탄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원망하고 있다면 배우자와 함께 핵폭탄이 터지는 곳으로 뛰어드는 셈입니다. 가족이나 나라나 정치를 원망한다면 이북의 핵폭탄이 터지기도 전에 내 인생에 스스로 핵폭탄을 터뜨리는 중입니다.

원망이 핵폭탄인 이유는 낙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원망하는 자에게 만큼은 복지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이들이 원망함으로서 사십 년간 광야를 배회하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복지에 들어간 후에도 원망하다가 복지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선민들은 반복해서 회개를 했음에도 왜 이러한 원망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바로 원망의 뿌리를 뽑지 못했기 때문이고, 원망이 솟아나는 샘을 부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망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10억 원 IQ로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해서 107원짜리 IQ로 끊임없이 대들고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107원으로 10억 원에 대들면 결과는 전멸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의 뿌리란 무엇일까요?

선민들은 회개를 많이 했지만 표면적인 행위에 대해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100주년을 맞아서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부흥을 일으키자는 취지로 행사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개기도를 하는데 표면적인 회개 이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과 결합한 마음 상태를 깨뜨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패역과 불순종은 계속되고 그 핵심인 원망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지만 이 말에는 보다 확장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아닌 것들에도 믿음을 작동시키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주는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에는 반드시 기쁨과 만족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기쁨과 만족의 근거로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꿈으로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무엇을 기쁨과 만족의 근거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마음의 기쁨과 만족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애굽 사람들이 향유하던 세상가치를 여전히 마음의 신으로 삼고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족과 기쁨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다른 신과 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돈 권력 건강 출세 형통 등의 다른 신을 섬기는 방식보다 자신들이 더 유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킬 정도로 강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애굽 사람들보다도 돈이나 건강을 얻기에 더 유리한 위치에 섰다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과의 결합이 더욱 강화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신과의 결합이 강화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습관은 더욱 쉽게 표출되고 강화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뭐하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불편을 주시는가?'라고 조그마한 불편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노예생활을 할 때에는 불편이 당연했기에 오히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푸시자 하나님을 등에 업었다는 착각에 빠져 사사건건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부잣집 자녀들이 부족함을 모르고 살다가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노예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을 얻자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내뱉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적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 마음이 다른 신과 결합된 마음을 절대로 깨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적에 의존함으로서 다른 신과의 결합이 더 강화되어 희망의 빛을 줍니다. 기적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주시느냐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벽돌처럼 쌓이고 가운데 길이 생겨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들어오자 물이 덮어 그들을 수장시켰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정도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였다면 감사의 마음이 평생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고작 삼 일 만에 목마르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단순히 목이 마르다는 생리적 불편을 호소한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 자체에 대해 불평하고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대한 회의를 품었습

니다.
상식 밖의 행동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내 마음에서 다른 신과의 결합 상태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복지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부족함 없이 쓰고 싶습니다. 노예로 살던 시절이 억울했으니 풍족하고 안정되게 살겠다는 마음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지와 결합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복지가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지가 다른 신의 역할을 하게 되자 하나님은 단순히 복지를 얻게 해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에 갈증이 생기자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나왔고, 신광야에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차라리 노예생활로 돌아가자는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억 원의 IQ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 107원짜리 IQ를 가지고 도전장을 끊임없이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갈등이 없으려면 하나의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107원짜리의 가치 밖에 없는 자신의 IQ 즉 주체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들의 주체성을 강화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소원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겠다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망은 곧 내 마음과 다른 신의 결합된 상태가 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70~80%는 돈 때문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걱정하는 이유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걱정하지마세요.
돈이 부족한 원인은 내 마음대로 지출의 명목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항상 부족합니다. 먹고 살 수 있으면 만족하세요. 새로 나오는 옷을 사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보세요. 제가 추울 때에 입는 방한용 옷은 20년이 넘었지만 해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아웃도어 회사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옷 하나면 죽을 때까지 입겠더라고요.
기쁨과 만족의 이유를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적의 현장만을 찾아다니면서 돈이라는 이름의 신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자녀 건강 취직 승진 등이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하는 유일한 기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단 하나의 기적

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입니다. 십자가가 기적인 것은 부활과 떼어놓으려 해도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가 기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으니 그 죽음조차도 은총적 기적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과 승천 사건에 마음을 두면 이상하게도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졌던 다른 신들과의 결합상태는 분쇄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만을 기쁨과 만족의 근거로 모시기 위한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이 결합되기를 바라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심령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내신 길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위에서 기쁨이 내려오고, 그럴 때에 그 기쁨은 삶의 현장에서 감사함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에 마음을 둘 때에 기존에 원망스럽던 환경은 하늘로부터의 기쁨을 쏟아내서 표현하는 현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하나의 기적에 마음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한 순간이라도 이 기적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평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항상 깨어서 십자가 하나만을 의식하고 붙잡아야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은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107원짜리 IQ를 풀가동시키며 하나님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을 할 때에 그 원망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나의 삶의 행복을 쳐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107원짜리의 IQ에서 나온 값어치 없는 계획과 생각은 하나님의 10억 IQ로 만들어진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의 뿌리는 다른 신과 결합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서 원망의 뿌리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기쁨에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하나만을 붙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해주시옵소서. 원망의 뿌리를 제거해서 기쁨과 감사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